



安孝公 宗會長 沈斗燮

戊子年の所望

2008년 1월 1일 戊子年の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宗人 여러분 올해도 尊體康寧하시고 萬事亨通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丁亥년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첫째로 북핵문제로 6者회담이 여러 번 열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더니 아직도 난관(難關)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입니다. 국민들의 이해가 상충(相衝)되는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 모두의 예지(叡智)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한 가닥 希望을 갖게 되는 것은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선에서 李明博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지(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李당선자는 산업현장에서 大成한 전문경영인(CEO)입니다.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國民을 섬기겠다는 초심(初心)을 잊지 말고 침체(沈滯)의 늪에서 허덕이는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戊子年 새아침에 李당선자께 드리는 국민 모두의 진솔한 所望입니다. 종회소식으로는 먼저 대종회주관으로 各宗會의 협조를 얻어 大田 뿌리공원에 門中の 상징물(象徵物)을 세워 조상의 공덕을 더욱 숭앙(崇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水原 안효공 묘역의 先祖墓를 인근吉地에 묘원을 마련하여 천장(遷葬)을 마쳤으며, 墓下 宗人들도 평정심을 되찾아 사회각분야에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今年에도 各級 宗會의 年例行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沈門의 품격을 드높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宗人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安孝公 宗會長 沈斗燮 拜



仁壽府尹公 宗會長 沈晶求

꿈과 희망을 주는 새해를 맞이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丁亥년을 뒤로 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 찬 戊子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가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平安하시고 항상 幸運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가내가 萬事亨通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사상 초유의 태안 앞 바다 기름 유출사건과 그 외에도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어려운 경제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宗中에서도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가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무난하게 지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對策과 方案을 더욱 준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3處(仁壽府尹公 良惠公 忘世亭公) 묘역관리 및 시향봉행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일가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젊은이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우리 모두에게 希望을 주는 한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가 여러분!

戊子년 새해에는 우리 青松沈氏 모든 일가분들이 和合 단결하고 마음을 터놓고 오순도순 宗事를 논의하여 으뜸기는 宗中이 되도록 끊임없는 참여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중에 敬경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仁壽府尹公 宗會長 沈晶求

광주판관 태등 심노송(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㉓

남에게 들은 것은 귀히 여기고 자신이 본 것은 천히 여겨 명(名)과 실(實)이 어그러지는 것을 천고(千古)의 마음 있는 자들은 안타까워하니 하나라도 그 진짜를 얻는다면 다행일 뿐이다. 근세에 상고당(尙古堂) 김씨는 골동품 수집하기를 좋아하였다. 사람들이 간혹 가짜를 속여 사주기를 구함, 그는 번번이 많은 돈도 아끼지 않고 사들이니 세상에서 또한 비웃었다. 아, 이 어찌 김씨의 골동품만이 그러하리오!

석치(石癡) 정씨2)의 벼루가 근세에 아주 이름이 나서 예술을 안다는 집치고 그것을 한 점 소장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여겼다. 나도 젊은 시절 석치 벼루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를 다니다가 잃어버려 매우 한스러웠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강성장(姜聖章)3)에게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저희 집은 석치가 만든 벼루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

습니다. 일찍이 그가 자신의 선조 묘문(墓文)에 글씨를 써 달라고 부탁하고 이 벼루로 사례를 했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때때로 말씀하시기를, 수천 개의 벼루를 보았지만 이 벼루만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 하였다. 나는 흔쾌히 청하였다. 벼루는 안산(安山)에 있어 성장이 나를 데리고 갔다. 벼루는 풍자형(風字形)으로 만든 것으로 그 돌의 본래 생김을 따라 미세한 요철(凹凸)을 잘 살리면서 아주 정교하게 자르고 갈아 거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경지가 아닌 듯했다.

석치의 두터운 사례와 표암(豹庵 강세황)의 극찬으로 그것이 대단히 훌륭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간절히 빌려주기를 청하니 성장이 허락하였다. 나는 너무도 기뻐다. 그 까닭은 능히 그 이름에 부합하는 실질을 소유하게 되어 김씨의 골동품처럼 세상의 비웃음 받는 것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심노송이 1820년 천안군수로 있을 적에 그곳에 살고 있던 강이문(姜彝文)과 오랜만에 만나 담소하던 중 우연히 석치 벼루 얘기가 나와 그의 집에 가서 그것을 빌리게 된 것을 기념하여 쓰여진 글이다. 글은 상고당 김씨 수장의 골동품들을 예로 들면서 귀이천목(貴耳賤目), 명실상란(名實相亂)의 사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 얻게 된 이 석치 벼루는 자신이 들은 것과 실제 본 것을 통해 엄연히 멸실상부한 진품이라고 자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석치 벼루라는 한 빼어난 예술품을 소유하게 된 희열을 산뜻하게 읊긴 심노송의 문필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석치 정철조는 소북(小北) 집안 출신으로 금대(金帶) 이가환(李家煥)과 처남매부 사이이기도 하면서 또 일찍부터 연암(燕巖) 그룹 과도 교류하고 있었다. 그는 서화에 뛰어났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벼루를 잘 만들어서 그의 벼루가 당대에 최고였다는 사실은 심노송과 그의 외삼촌 이규상의 글(병세재언록)을 통해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호 성치(石癡)는 바로 그의 벼루에 대한 벽(癖) 때문에 지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 끝

理事 總務 昌輔 事務 載求 事務 奎燮 事務 德求 事務 鍾德 事務 駿求 事務 亨長 事務 植春 事務 應輔

副會長 贊求 副會長 鍾植 副會長 根植

青松沈氏 仁壽府尹公宗會

謹賀新年

理事 相文 讚秀 宜杓 載春 容圭 彦容 種福 (인친) 在安 相直 光燮 載球 相國 (수원) 相哲 相燮 彦澤 相元 相益 相武 彦植 應鎮 舜鎮 相革 相讚 彦成 彦契 相昇 玉鎮 英燮 相雨 相福 (화성) 國鎮 相鳳 相鶴 (군포) 揆逸 (평택) 文鎮 (과천) 應璋 (김포) 康燮 相達 昌燮 允輔 學燮 相弘 炯燮 (성남) 載烈 (익산) 文錫 (용인) 寬鎮 永周 星澤 彦昌 相浩 景燮 相穆 載益 (안성) 振裕 俊澤 相旭 錫圭 政燮 (과주) 忠澤 仁燮 海燮 榮燮 (여주) 平來 (춘천) 相穆 仁燮 (원주) 正輔 相烈 (대전) 宜哲 應斗 載榮 奉燮 連輔 星輔 玄根 (청주) 成輔 載龍 相昊 (충주) 中鎮 成來 興來 (예산) 承澤 (아산) 彦昇 仲根 (진주) 在圭 (광주) 堯燮 勝燮 憲燮 (익산) 相睦 相泳 相國 塔燮 仁求

元 老 成澤 載鴻 現澤 宜亨 奭鎮 元燮 甲輔 相熙 應斌 會長 魚澤 副會長 斗燮 副會長 澤澤 庚周 相龍 運營委員 光澤 萬鎮 行鎮 相八 相德 彦浩 相穆 明玉 敏玉 寬錫 鳳鎮 文秀 茂燮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謹賀新年

대유 심대운공의 발견 (上) (大儒 沈大允公의 發見)

불운(不運)을 딛고

심대운공(沈大允公)은 19세기의 인물로 경제학의 大家이면서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인물이었다 심대운 전집(沈大允全集)의 간행사(咸均館大學校 總長 徐正燾)에서 보듯 公의 저서는 1990년경에야 비로소 발굴되었으며 이는 총 20여의 集成을 이루어 가히 全集이라는 이름에 값할만한 성과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심대운은 19세기 조선사회가 배출한 큰 학자이면서 특출한 사상가의 한 분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인물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전집 머리말에서는 1955년 일본인 대학자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가 발표한 논문에서 심대운은 조선 양명학과(陽明學派)의 중요한 존재로 다룬 사실이 있는데 이 또한 우리 학계의 눈길을 끌지 못한채 지나갔다 라고 하였다. 심대운공의 유고(遺稿)들은 1925년에 이르러 비로소 문밖을 나와서 볼 수 있게되었다. 이것은 그의 학문의 내용과 논리와 사상이 세상에 공표되어 어려웠던 때문이다. 무슨 비밀문서처럼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그의 학문 성향은 그 자신의 가계 및 삶에 현실과 직결되어 있었다. 1935년 12월 26일자에 동아일보에는 정인표(鄭寅杓)라는 학자의 서거 소식을 전하면서 심대운의 마지막 남은 고제(高弟)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크지는 못하더라도 심대운의 學派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분 제자들은 스승인 대운공의 경제학 저술을 출간하기 위하여 1927년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公의 년보(年譜) 말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적고있다 동문(同門)의 친구인 심명섭(沈明燮)군이 바야흐로 심선생의 경서를 간행하려고 도모하는데 나에게(鄭寅杓) 교감(校勘)의 일을 요청했다. 인표는 비록 노쇠한 몸이지만 어찌 감히 이 역사(役事)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리오. 지금 세상에 심군이 반드시 행해야 할 책을 간행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자 하니 우리 인민들에게 존경하고 가까이 할 바를 알도록 하고자함이다. 下略 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公은 英祖때 영의정을 지낸 심수현공(沈壽賢:1663-1756)의 高孫이다. 심수현공이 슬하에 다섯분의 아들

을 두셨는데 그 중 첫째는 文人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심욱(沈錫: 사헌부 대사헌)이고 둘째가 부제학 악(錫)으로 이분이 大允公의 증조가 되신다. 부제학공은 英祖 31년(1755)에 일어난 乙亥獄事(羅州掛書事件)에 연좌되어 참형(護逆罪)을 입으셨다. 乙亥獄事란 영조가 즉위하기 전부터 영조를 둘러싸고 일으킨 노, 소론간(老, 小論)의 당쟁에서 소론파가 화를 당하자 소론파는 그 후에도 끈임없이 사건을 생산하여 오던 중 이로 인해 20년간 귀향에 가있던 尹志가 불만을 품고 국내 모든 소론파를 규합하고 민심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귀향지 나주에서 나주객사에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부쳤다. 그러나 의거를 하려다 일이 사전에 발각되어 그 일파는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을 당하고 강경한 소론파중 중견 인물로 연좌되었던 公은 자변소(自辨疏: 일종의 전향서)를 강요받았으나 끝내 거절하고 참형의 길을 택했다. 이 일로 인해 그의 가계는 폐족이되었다. 公의 부인은 다섯 살난 아들을 데리고 광양 지역으로 관비로 나갔으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당시에 다섯 살 난 어린 아기는 옹하게도 그곳에서 성장하여 아들 딸을 낳고 죽어 그곳에 묻혔는데 대운공은 이분의 손자가 되신다. 대운공의 아버지 완륜공(完倫)은 조부 악의 막내 동생인 발(鉞)의 아들 무지(戊之)에게 양자로 입적하여 발의 생거지인 안성현 가곡(佳谷(가재울): 현재 행정주소는 용인시 원삼면 가좌리)으로 이거하여 이곳에서 대운공을 낳았다.

대운공은 빈곤한 중에도 어려서부터 학업에 정진하였다. 公의 나이 15~16세 때 이미 시경, 서경, 주역, 중용, 대학, 논어, 맹자(詩經, 書經, 周易, 中庸, 大學, 論語, 孟子)등 경서(經書)를 두루 읽었으나 자신의 재주와는 어긋나는 점이 있어 春秋와 역사서(歷史書)를 열심히 읽고 그 하늘과 인간의 관계와 역사 변화의 연구를 궁구하되 春秋에 절충을 하였다. 公은 젊은 시절의 이 같은 공부를 바탕으로 후일에 춘추사전주소초선(春秋四傳註疏抄選) 10책, 춘추사전속전(春秋四傳續傳) 3책 동사(東史) 6책 전사(全史) 58책 좌국정론(左國定論) 등의 서적들을 편찬 하였다.

대운공의 학문사상의宗旨)는 利 에 두고 있다. 도가 성립하는데 필히 利 에 근본하게 된다고 전제 한 다음 이로운 利 한 글자는 만물의 몸 體 이 되고 만선(萬善)의 본이 되나니 천지의 큰 덕이요 성인의 큰길이라 (周易象義占法)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듯 利 를 중시한 만큼 그의 학문의 논리와 체계는 利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 文化部 -
< 다음호에 계속 >

나주객사의 변(羅州掛書의 變)

1755년(英祖 31) 少論일파의 謀逆事件. 乙亥獄事 또는 尹志의 난이라고도 한다.

朝鮮 肅宗末年 연잉군(延仍君) 금(吟: 영조)을 老論에 부탁한 뒤부터 少論파의 선봉들은 老論을 원수같이 여기며 연잉군 마저 제거하고자 했다. 1722년(景宗 2: 단의왕후 沈氏) 壬寅무옥을 일으키고, 英祖가 즉위한 후도 1728년(英祖 4)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비롯하여 역모사건이 속출했다.

이 나주객사의 변은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의 마지막 큰 사건이었다. 사건의 주동자 尹志는 肅宗 때 과거에 급제, 1724년(英祖 즉위) 金一鏡의 옥사(一鏡은 景宗 때 王世弟: 후일의 英祖)에 반대하여 이를 제거하려고 임금께 모함하여 壬寅무옥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일 이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곧 김일경은 처형되고 아들 4형제도 교수형에 처했다.]에 연좌되어 아버지 就商은 고문 끝에 죽고 자신은 제주도를 거쳐 羅州에 귀양갔다. 귀양살이 20여 년에 나라에 큰 원한을 품고 老論을 제거할 목적으로 아들 光晔과 羅州목사 李夏徵 및 李孝植등과 모의하고 푸닥거리를 빙자하여 동지 규합에 힘썼다.

당시 수차의 변란으로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무리들과 불평 분자들을 흡수하고 또한 경향간의 소론 중에서도 중요한 벼슬을 지낸 집안들이 모의에 가담하여 기반이 점점 튼튼하게 되었다. 尹志는 먼저 민심을 동요시킬 목적으로 1755년(英祖 31) 正月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나주객사에 붙였던 바, 그의 소행이 발각되어 거사 전에 전라감사 조운규(趙雲逵)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는 영조의 직접 신문을 받고 二月에 朴纘新 金潤 趙東鼎 趙東夏 등과 함께 사형을 당하고, 이 광사(李匡師) 尹得九 등은 귀양을 갔다. 그 후 5월에 토역경과정시(討逆慶科廷試)가 있을 때 윤지의 일당인 沈鼎衍이 또 나라를 비방하는 글을 써서 체포되고 이어 春川擧兵의 역모 사건이 탈로되니 심정연은 주모자 尹惠 金道成 申致雲, 公모자 金寅齊 李佺 朴師緝 李竣 등과 함께 사형을 당했는데, 이밖에도 김일경의 일파로서 이에 연좌된 자가 대단히 많았다. 그때 少論과 李宗城 이보(李輔)등도 불리어 문초를 받게됐으나 영조는 불문에 붙였다. 이로서 소론의 흥계는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난이 수습되니 王은 이를 계기로 유신(儒臣)들에게 명해서 앞서 있었던 변란의 시말(始末)을 사실대로 기록케 하여 천의소감(闡義昭鑑) 이라 이름을 지어 자초지정을 밝혔다.

*임인무옥(申壬土禍) 李麟佐의 亂 羅州掛書의 變
*문헌: 逆賊尹志等推案, 闡義昭鑑, 英祖實錄, 朝野輯要, 藥坡?錄
- 文化部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 世考選, 祭享笏記, 手帖, 鬻지 포함, 종보축쇄판)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종회를 사칭하면서 책자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송 금 안 내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 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084-01-179314
대종회 심명구

청 송 심 씨 대 종 회
전화 : (02)2267-7857

宗 事 消 息

三韓國大夫人 忌辰祭 奉行

2008년 1월 1일(음:11월 24일)



- 初獻: 彦村 亞獻: 相厚 終獻: 雲鎮
- 大祝: 載澈 執禮: 載玉 執事: 應植 相福

11世祖 忠翼公 忌辰祭 奉行

2008년 1월 11일(음 12월 5일)

- 初獻: 相義 亞獻: 愚夏 終獻: 洪燮
- 大祝: 昌燮 執禮: 載玉 執事: 載澈 明燮

대구시 문화상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과 심상철 교수
심상철교수는 10월 20일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자연과학부 제 27회 대구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심교수는 대한화학회 회장(2003년), 화학관련화학연합회 회장(2005년)을 지냈으며, 현재 공학한림원 정회원, 중국 연변대학 명예교수 등을 겸하고 있다.

심교수는 200여편의 SCI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현재에도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청송심씨 대구종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령공파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大田 뿌리公園 造形物 建立 特別誠金

대전광역시에서는 1998년 보문산 기슭에 뿌리공원을 조성하고 각 문중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72개 문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공원부지를 확장하고 추가로 69개 문중의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도 문중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하여 뿌리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자랑스런 청송심문의 역사를 알리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금액은 각 종회의 성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효공종회 : 20,000,000원 이경공종회 : 5,000,000원
- 내금위공종회 : 5,000,000원 신천공종회 : 5,000,000원
- 금당산종회 : 5,000,000원

青松沈氏 內禁衛公宗會(蔚山) 謹賀新年

任員改選二 八年一月

理監財總副會顧	事事務務長問	愚文隆應彦守英應	寬植求植輔輔求	明晤世永	揆華喜求	揆東根	明植和
		植求植求	植求植求	植求植求	植求植求	植求植求	植求植求

2007년도 업무추진 주요내용

1. 우리의 관향인 청송에 회관을 신축하고자 작년 12월에 건축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3월초에 공사를 시작하여 6월말까지는 3층(연건평 210평) 건물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1층과 2층은 임대하고 3층에는 청송회관 사무실을 마련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조산소에 성묘를 오시는 일가분들이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시조산소의 제각인 만세루는 기와가 파손되어 빗물이 새고 목재가 많이 상하여 청송군에서 문화재 보수예산을 책정하여 기와를 전부 걷어낸 후 목재의 상한 부분을 모두 교체하고 다시 지붕을 이었으며, 금년에는 찬경루도 금이 간 대들보를 교체하는 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중대산소는 안내표석을 설치하여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덕천동에는 이 마을 출신인 상한(相翰)씨가 현성하고 대종회에서 글을 지어 靑松沈氏 貫鄉 德川마을 텃돌을 건립하였습니다.
4. 함열 함문지후공 재실인 영모재는 관리사가 장기간 비어 있었으나 금년초에 입주할 희망하는 분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5. 안성 청화부원군 산소는 여름철 장마에 봉분이 무너져 돌레석을 용미까지 설치하여 봉분의 모양을 살렸으며, 도기동 배위산소 진입로도 배수로를 설치하여 홍수피해를 모두 복구하였습니다.

6. 연천 청성백 산소는 관리사 로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 받아 금년 7월중에는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토의 보상금으로 괴산군 청천면에 임야 59,73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산소를 수호하고 제향을 봉행하면서 위토를 관리하고 계신 有司님과 일가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보존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매년 청송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하여 왔으나 참석 인원이 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 2007년부터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뿌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7월 28일 교육을 실시한바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8. 대전 뿌리공원에 우리문중의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5월중에는 뿌리공원을 찾는 일가분들이 청송심씨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설치할 것입니다.
9. 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대동세보의 전 내용을 인터넷축보에 등재하여 누구든지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대동세보와 별도로 발간 한 파보내용을 모두 인터넷축보에 수용하고 추가로 등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연중 수단을 접수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이사 鍾赫

靑報會 동정



도봉 산선인봉배경으로

3회 청보회(靑松沈氏 宗報 발송 모임) 등산회원 10명이 11월 3일 10시에 도봉산역에서 모여 오늘의 산행목적지로 발길을 옮겼다. 1시간을 산행을 하고 相厚회원은 건강이 허락지 못하여 하산을 하고, 회원 9명은 목적지인 위암을 거쳐 마당바위 코스로 4시간을 산행하고, 장시간 기다리고 있던 相厚 회원을 만나 피로를 푸는 한잔의 술로 오늘의 산행을 끝냈다. 다음 산행에도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청보회 등산회원10명이 12월 8일 10시에 수락산역에 모여 금일은 수락산을 등정하기로 하였다. 회원10명이 오르기 시작하여 1시간30분간 산행하였으나 회원 두분은(상후 재일) 감기몸살로 하산하기로 하고, 쉬터에서 충분히 쉬고 산행을 계속하여 정상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9부 능선까지 올라가서 하산하였다. 4시간에 걸쳐 산행을 하였다. 오늘도 서운한 기운이 있어 한잔의 술로 기애애한 이야기를 꽃피우면서!

- * (의결사항) 顧問: 相華 / 會長: 洪燮 / 總務: 昌輔
- 등산일: 每月 첫째 土曜日
- 參席者: 洪燮 相華 相厚 求亨 載求 三圭 載德 載澈 載烈 愚夏 種福 昌輔
- 5회 등산모임 2월 2일 아차산역 10시

戊子年을 맞이하여

그렇게 어수선했던 丁亥년도 어느새 서산너머로 사라지고 희망찬 戊子年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일가여러분! 그리고 舍人公宗會 會員님여러분! 금년도 그 어느 해 보다 하시는 일이 잘 성취되시길 바라며 나아가 일가 여러분의 건강과 더불어 가내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나고 보니 정해년 한 해도 참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외의 정세가 그러했고 우리 舍人公宗會의 상황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宗會는 沈永澤 初代 會長님을 모시고 새로 종회를 결성한지 8년이 지나도록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간 우리 종회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그때마다 임시총회를 하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여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祖上님들의 제향을 봉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종중재산을 지켜야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종회는 종손과의 지루한 소송에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고 지분상속을 받은 종가의 상속인들은 모든 종중재산을 처분하려고 있으나 우리 종중은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2007년도 저물어가고 있는 12월, 우리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소송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재개하였습니다. 고사성어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명을 다 바치고 그 결과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행운의 해로 삼고자합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새해 인사로 대신합니다.

靑松沈氏 舍人公派宗會 總務 沈容圭

山川은 빼어나게 아름답고 인심 또한 후덕하니 이곳이 바로 우리 靑松沈氏의 貫鄉이다.

우리의 시조 文林郎公 휘 洪孚께서는 이곳을 관향으로 得姓을 하시고 뿌리를 내리시어 두 아드님을 두셨으니 長은 閭門祗侯公 휘가 淵이요 次는 奉翊大夫公 휘가 晟이시다. 휘 淵이 또 아들 한 분을 두시니 이분이 靑華府院君이요 휘가 龍이시다. 휘 龍께서 또 두 아드님을 두시니 長에 휘가 德符요 次에 휘가 元符이시다. 큰아들 휘 德符께서는 고려 말에 門下侍中을 두 번 하시고 朝鮮朝에 들어와 靑城伯에 봉하시고 좌의정에 올랐다.

다음으로 岳隱公 휘 元符께서는 麗末에 典理判書로 계셨는데 李成桂의 易姓革命으로 고려가 망하자 忠臣은 不事二君이라, 齊나라 충신 왕족의 道를 따라 杜門洞에 드시니 이날이 공의 亡日이라 하셨다. 두 분 형제께서는 文武兼全으로 경륜이 높아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항상 앞에 나와 계셨다.

靑城伯께서 七형제를 두시니 다섯째 安孝公 휘 淵이 世宗國舅로 영의정이요 여섯째가 靑原君 휘 滄이시니 부마이시다. 安孝公의 女로 世宗王妃를 삼으시니 昭憲王后이고 아들 恭肅公 휘 滄가 정승이 되시

靑松沈氏 本鄉 德川마을

니 마침내 三代정승의 家門에 올랐다. 九世에 휘 連源과 휘 通源은 형제정승으로 甲族의 班列에 들게 하고 三王后, 13相臣에 4駙馬를 이루니 報本의 禮를 다하였도다.

岳隱公께서 세 아들을 두시니 첫째가 舒同正公 휘가 天濶이요 둘째가 縣令公 휘가 天柱이시고 셋째가 휘 天湜이시다. 아버님의 가르침으로 風光좋은 이곳 德川에 터를 잡고 世世年年 後生을 教導하니 어언 世居地가 되었도다. 그러나 岳隱公의 유택이 없고 공의 信標하나 없어 후손으로 민망하더니 이제야 宗人들의 뜻을 모아 재실을 창건하고 享壇을 設壇하여 歲一祀를 올리게 되니 이것이 모든 후손들의 敬意의 뜻이로다.

壬辰年(1592) 4월 17일 왜병 15만 대군이 동해를 덮고 각 방면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니 국운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11世祖 벽절公 휘 淸께서는 지금이 바로 죽기로 맹세하고 나가 싸울 때 라 생각하나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지라 공은 눈물을 흘리시며 어머니께 말하기를 忠孝는 함

께 하기는 어려우나 이 한 몸 바쳐 나라에 보답하겠다 고 하니 어머니가 쾌히 허락하셨다. 큰아들 應洛을 대동하고 倡義하니 응모자가 80여명에 이르고 여러 장수들과 합세하여 싸우니 왜적들이 못 견디고 도망하였다.

그러나 싸움은 그리 간단히 끝나지 않았다. 丙申年에 공이 詩를 지어 말하기를 같은 하늘아래 원수가 같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으니 나라를 위하여 죽어도 걱정이 없다. 하였다. 丁酉年 12월 21일 島山 전투에서 적진에 들어가 혈투를 하였으나 마침내 왜구의 총을 맞고 순절하니 슬프다! 의병으로 전투에 임한지 5년 7개월 만이다.

그 후 300년이 지나 다시 이 지방에 곳곳에서 왜구가 창궐하여 나라가 存亡之秋에 이르렀다. 벽절公의 8代孫 老師 敦寧府都正 휘 誠之公께서 분격하여 15명의 親知와 함께 수백의 의병을 이끌고 倡義하여 왜구에 항전하였다. 싸움은 격해지고 총에 맞고 칼에 찢겨 온몸이 부서지고 피가 터지는 고통을 견디시며 왜구를 섬멸코자 분전하였으나 끝내 뜻을 펴지 못하고 생애를

다하여 순절하시니 11世祖 휘 淸公과 함께 그 이름 靑史에 남겼도다.

二世祖 奉翊大夫公 휘 晟은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長은 判書公으로 휘가 漣이요 次는 上護軍公으로 휘가 卿이시다. 판서공의 후손은 鐵原地域에 뿌리를 내렸으나 상호 군공 후손은 世居地가 北方이라 소통할 수 없음을 안타까운 일이다.

靑松沈氏는 靑松고을에서 得姓한지 750여년에 年年이 계승하여 名賢達士 배출하고 英祖때에 이르러 德川호박골에서 沈處大公은 萬石의 富를 이루었고 代를 이어 세습(世襲)하니 七代孫 松韶 沈琥澤公이다.

1880년에 저택을 신축하고 이사하여 현재에 이르니 경상북도민속자료 제63호로 지정되었으며 마을이 관광지로 되었음은 다 이런 연유에서이다. 光復후에도 이곳 德川에서 岳隱公 후손 宜渙 宇永 두 분 長官과 吉燮 明輔 두 분 國會議員을 배출하여 子子孫孫 번영하니 그 後光이 靑松고을에 찬연하리라.

서기 2007年 8月 3日

靑松沈氏大宗會 文化理事 沈載烈 지음
靑松沈氏 岳隱公 十九代孫 沈相翰 建立

宮中秘史篇

심순문의 여난 (沈順門의 女難)

심순문은 이조 연산군 시대의 사람으로 글 잘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소위 호남(好男)이었다 거기다가 흰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부리부리한 눈매하며 한일자로 다문 입술 등 그의 외모가 장부다운 풍채였기 때문에 그는 많은 친구와 기녀(妓女)들 사이에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 : 좋은 일에 마가 깎는다는 뜻)라고 그렇게 친구들과 기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던 그였지만 한 여자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가게 될 줄은 심순문 자신은 물론 세상에서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복숭아꽃이 활짝 피고 소를 모는 농부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화창한 봄날 오후였다.

따사롭게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심순문과 그의 친구들의 들놀이는 한창 무르익어 갔다. 한쪽에서는 기생들이 나비처럼 춤을 추었고 또 한쪽에서는 거문고에다 장고며 젓 대(피리)를 신명나게 연주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 심순문 일행은 마음껏 술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또 봄에 취해버렸다.

그 때였다. 얼굴이 불그레 달아오른 친구 한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그 친구는 심순문과 같이 사인(舍人)벼슬을 하고있는 강훈(姜渾)이라는 사람으로 심순문과는 뜻이 잘 통하는 선비였다.

이렇게 강훈이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일행들이 바라보자 그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야! 천하 일색이로구나! 하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제서야 심순문도 거나하게 취한 몸을 일으켜 일행의 눈을 좇아 한 곳을 바라보니 이게 어이된 일인가? 거기에는 선녀처럼 아름다운 두 여인이 하얀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우고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순간 심순문과 강훈은 가슴이 울렁거림을 느꼈다.

저처럼 꽃 같은 아니 선녀 같은 여인을 품에 안아 봤으

면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감히 입밖에 내지도 못할 일, 남녀의 구별이 특히 심하던 그 당시로선 남의 집 유부녀를 사모한다는 것은 패륜아가 되지 않고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렇지만 눈앞에는 선녀 같은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는데 어찌 할 것인가?

술좌석은 이미 흥이 깨져버렸다. 모두들 같이 온 기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봄맞이 나온 두 여인에게만 눈독을 드리는 것이었다. 사태가 이쯤 데자 술 따르던 기생들은 화가 잔뜩 나서는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들은 저 아름다운 두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고있었던 것이다.

흥 저년들이 다 같은 화류계 계집인데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저 지랄이람. 체, 별꼴 다 보겠네

글세 저년들이 사내에게 환장 했나? 남 노는데 와서 휘방하게. 흥

심순문과 강훈은 귀가 번쩍 띄고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기생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보게, 순문이, 자네 생각 없는가?

이 사람야, 생각 없긴, 지금 난 가슴이 바짝 바짝 타고 있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화중지병(畫中之餅: 그림의 떡)이지

여보게, 나서보게 저, 여자들도 노류장화(露柳牆花: 아무나 꺾을 수 있는 길거리의 핀 꽃)가 아닌가? 자네라면...

그렇까? 좋아, 내 해 봄세

이렇게 해서 심순문과 강훈이 봄맞이 나온 두 여인과 다시 술좌석을 벌이게 된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고 그들은 밤이 이슬하자 서로 헤어져 각각 여인을 따라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밤을 새우며 정을 쏟았다.

그 후 심순문과 강훈은 하루가 멀다하고 그 기생들을 찾았는데 이렇게 온갖 일을 내던지고 여자에 빠져버린 그들의 소행이 날을 거듭하자 참다못해 정봉(鄭鵬)이란 친구는 어서 손을 끊으라 고 기회 있을 때마다 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색에 빠져버린 심과 강은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올리는 만무였다. 다만 정봉 앞에서만

그러지, 암, 곧 손 펴 테니 걱정 말게나 할 뿐이었다.

그리고선 여전히 밤이 되면 화선(花仙)이라는 기생을 찾아가 마음껏 정을 통하다가 새벽에야 집에 돌아가는 심순문 이었고 강훈 역시 그랬다. 그러나 정봉의 끈기 있는 설

득에 강훈은 드디어 손을 끊게 되었으나 심순문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꿈같은 생활이 계속되던 그 해 가을이었다. 드디어 이들에게도 불운이 다가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별이었던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붙어살던 심순문과 화선. 그들에게도 슬픈 날이 닥쳐왔다. 화선이 아름다운 얼굴 때문에 궁중으로 뽑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아름답다는 것도 죄인가? 아름다운 계집은 여느 사람에겐 과하단 말인가? 생각하니 그 뜨거웠던 연정에 심순문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궁중에 뽑혀 들어간 화선을 그리며 애타게 매일처럼 술에 취해 궁문(宮門)앞을 어정거렸던 것이다. 물론 강훈이 사랑하던 기생도 화선과 함께 뽑혔으나 강훈은 이미 그녀를 잊은지 오랜 탓으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한편 궁 안에 들어온 화선은 생이별한 심순문을 그리워하며 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게 또 웬일인가? 연산군이 화선을 보자마자 그녀의 미모에 홀려 그녀를 매일처럼 불러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아무 때나 생각나면 그녀를 침실로 데리고가는 것이었다. 지엄하고 높은 상감을 모시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화선의 마음은 심순문만을 그리워했고 연산군과 함께 잘 때도 연산군이 아닌 심순문만 생각하곤 하였다. 그렇게 되자 연산군은 화선의 마음이 딴 남자에게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하지만 화만 머리끝까지 닳을 뿐, 차마 임금의 체면에 화선, 더구나 궁녀에 불과한 아녀자의 소행을 탓할 수는 없었다. 다만 다른 궁인을 시켜 화선이 궁 밖에서 어떤 남자와 가까이 했는가를 조사했은 뿐이다. 이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임사홍 일파는 갑자사화(甲子士禍)를 비밀히 계획하고 있던 중 임금 즉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심순문도 처치하려는 명부에 올려놓았고 사화(士禍)가 표면화하여 폭발되자 심순문은 억울하게 까닭도 모르면서 죽어갔던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화에 관련되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강훈이나 정봉만은 왜 그가 죽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